

학교 운영계획서

소속		직 위		성명	○○○
----	--	-----	--	----	-----

전환 2기- 고산고 대안교육이 미래 교육이다!

II 고산고 걸어온 길

1. 고산고, 한국교육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교육은 그동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산업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국, 영, 수 중심의 지식 암기식 교육을 주로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호모사피엔스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 환경이 조성되었다. ‘Chat GPT’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시대다. 그간 기계는 인간의 육체를 대체하는 과정을 걸어왔다. 그런데 이제는 머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인간 못지않게 뛰어난 인간 아닌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기 인 것이다.
- 자연스러운 질문은 ‘무엇이 인간답게 해주는 것인가?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 그것을 위해서 교육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대한 질문들 앞에서 교육은 무어라 대답을 해야 하는가? 근대 이후 지속해왔던 시험공부 방식의 지식 옥여넣기 공부를 공부라고 우기면서 모른 채 지속할 것인가? 요즘 주요 잣대인 효율성 측면에서만 단순히 질문을 하자면 ‘인공지능이 매우 잘하고 그들에게 맡겨져야 할 그것 들에 인간이 왜 열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가? 비효율적이게 그걸 잘 활용하고 인간은 그 활용을 통해서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그렇다고 ‘지식 공부는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반론은 문제의 핵심에서 한참 벗어난다. 지식은 인간이 인식하고 사유하는 데 꼭 필요하다. 오히려 지식 공부에 날개를 다는 것이다. 나와 세상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개념을 통해서다. 호기심은 인간 본유의 특성이다.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식 공부를 맹렬하게 하게 돼 있다 그렇게 자

기 질문을 만들고 그걸 찾아 푸는 원래의 공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 소위 삶을 위한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당장의 삶을 풍부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부로 전환하자는 것! 이것이 미래 교육 아닌가?.

2. 입시몰입교육 지양을 통해 “성찰과 전망”을 위한 교육을 해 왔다

- 그간 한국 사회는 교육에 입시몰입교육을 요구해왔다. 공교육의 학원화 입시몰입교육에 전적으로 매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속에서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정신적 결핍을 동시에 갖게 돼버린 사상 초유 저출산 시대에 이르게 됐다. 저출산은 인간의 본능인 생명의 지속 유지를 포기한 ‘반생명’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땅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라지고 마을이 사라지고 OECD 자살률 최고인지 오래다.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가고 있다. 지금의 한국 현실이 물론 전적으로 교육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 인과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입시 몰입교육이 가져온 대표적인 현상이 인간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켜 놓은 것이다. 만인은 만인과의 연대와 환대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을 넘어 투쟁과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온통 교실에서는 무기력과 텅 빈 눈동자만 가득해졌고 사회는 서로를 혐오하는 모멸감이 팽배한 사회가 되었다.
- 고산고는 입시몰입교육 대신에 소위 삶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 교육 교육기 본법에 적시된 교육이념에도 부합한다.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으로 고산 교육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고산고의 목표다. 지금 당장의 이 시간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와 미래는 실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시간이 과거요 미래인 것이다. 지금 여기서 나를 사랑하고 타인과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것 그를 위해서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인간은 사는 대로 살아진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잘살아야 한다. 인생은 급류와 같아서 지금 잘 흘러가야 한다. 지금이 모여 이미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고산고가 해온 교육이 해방 이후 우리 교육이 추구하자고 법에 새겨둔 교육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

- 고산고는 適期 교육을 해왔다. 청소년 시기의 경험은 전 생애에 걸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경험은 기억으로 전환되고 그 기억은 경험을 유발한다. 좋은 경험은 좋은 경험을 유발하고 나쁜 경험은 나쁜 경험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전두엽의 발달을 목적으로 학교가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이념에 적시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 청소년 시기는 “회고중점시기”라고 불리며 전두엽이 재구축 되는 시기다.

전전두피질의 역할
1, 감정과 충동 조절 과제 지속력, 끈기, 집중력
2, 자신에 관한 정보처리(성찰) 타인에 대한 정보처리(감정, 의도 파악)
3, 예측, 판단, 의사 결정(전략적 행동)

〈김주환, 내면소통, 2023〉

- 위 표를 요약하면 전두엽 발달은 “성찰과 전망”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반성하는 본능에서 성찰로 전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반성은 과거에 머물지만, 성찰은 미래를 향한 전략의 일환이다. 성찰은 자기 이해와 타인(세상) 이해를 가져온다. 이에 기반해서 자기조정, 타인 조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익히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3. 고산고, 작은 학교 속에서 모두와 만나는 “관계교육”을 해 왔다.

- 관계는 존재다.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발현한다. 상대가 없이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이유 없기 때문이다. 고정된 실체로써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천변만변하는 가유(假有)로써 존재한다. 삶이 사건의 연속이라 한다면 사건도 관계의 역동이다. 즉 삶도 관계다. 삶의 총체가 사회라고 한다면 사

회도 관계다.

- 학교 사회가 환대와 지지의 관계라고 한다면 학교는 교사, 학생, 양육자들의 서로 성장의 장소가 된다. 성장은 환희다. 인간은 자기 경험과 자기 입장의 틀 속에 갇히는 숙명을 타고났다. 공자는 40세에 정점을 이룬다고 한다.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아!’ 하고 깨닫게 된다. 깨닫는 순간이 자기를 벗어나는 확장이다.
- 성장을 자각할 때 내적으로 발생하는 환희심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감각되는 모든 것에 집착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 욕망이라 한다면 이를 대체하는 다른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인간은 동기(목적)에 의해서 움직인다. 외적 동기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내적 동기를 경험해야 한다.
- 학교 사회가 경쟁과 배제의 관계라고 한다면 두려움과 긴장이 학교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근과 채찍에 의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구성원 모두는 두려움과 긴장을 상쇄하기 위해서 욕망을 부풀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질주하고 투쟁하고 서로를 끌어 내리는 마이너스 사회가 될 것이다. 고산고는 그간 대안학교로써 관계 교육의 결정체 “환대공동체”를 이룩했다.

4. 학생, 교사, 양육자가 성장하는 배움의 공동체

- 배움의 공동체의 목적은 결국 배움을 통한 성장이다. 배움은 삶 자체다. 모든 일상과 관계 삶이 배움을 유도하며 고산고등학교의 전 구성원들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점점 확대 안정화 돼가고 있다

① 자신의 갈등과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받을 수 있는 학생

- 1학년 학기 초에 학생들은 어떤 틀을 강요하지 않는 존중과 환대 속에서 개인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개인의 취약성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사회적 자아는 타인의 눈치 속에서 자기 취약성을 굽아 터질 때까지 은폐한다. 그런데 고산고에서는 그간 쌓여온 취약성들이 스멀스멀 붓물 터지듯이 터진다. 이 과정에서 갈등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성찰하고 치유하고를 고산고 생활 내내 각자의 취약성의 색깔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 춤을 춘다. 자기 길을 간다. 3년을 그 자리에서 반복하

다 졸업하는 학생도 있다. 이 과정은 교사들이 좋은 어른과 교사로 존재 해야 가능해진다.

② 나의 경계를 부수고 열어 나가는 교사

- 교사들도 성장하고 있다. 학생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매일 다른 것 (학생, 상황, 사건)을 접하는 환경에서 교사는 스스로 문을 열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청은 나에게 많은 변화를 촉진한다. 그와 내가 연결되고 함께 존재하게 된다. 나의 완고한 ‘옳다’, ‘그르다’는 잣대가 무너지면서 해방감과 트이는 시야를 확보하게 된다. 결국 자기 내면의 慈심과 悲심이 커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선생님들은 몇십 년 자기가 고집했던 생각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을 매 순간 자각하게 된다 변화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고 있다.

③ 소비자가 아닌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양육자

- 양육자 또한 한정된 정보 속에서 완고하게 머물고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학교에 적극 참가하고 서로 교류하고 발언하고 경청하는 과정에서 자기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 2학년 정담회에서 양육자 한 분이 일상이 바빠 학교에 오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오고 나서 다른 아이들과 교사 다른 양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해와 생각이 확장되면서 성장하는 뿌듯한 느낌이 들어 꼭 참석하러 한다고 말했다.

④ 지역소멸,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의 학교’로

- 고산이라는 마을은 익히 알려진 대로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 전국의 선진지 만형이다. 전국의 많은 마을 교육 공동체가 고산을 배워 갔다. 거의 대부분 교육공동체들은 초등과 중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마을 교육은 일부 마을을 소비하는 정도로 단위 개별교사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마을과 학교의 만남 “학교-마을전담팀” 이 꾸준히 가동되면서 최근에는 이 구조 속에서 여러 사업이 속속 진행되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벼 두레라는 마을 농사공동체에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마을 살리는 마을 속에서의 교육을 향한 가능성이 피기 시작했다.
- 시간이 모든 것을 낡게 하듯이 고산도 활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 새롭게 고

산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마을 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고산향 공동체를 또 일어서게 할 것이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어 낸다. 마을의 위기를 학교가 자기 문제로 떠안는 것이 출발이 되겠다. 부담은 가지만 고산고만의 힘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 잘 조직된 삶과 배움의 터전 고산공동체가 발아 단계를 막 지나고 있다.

II. 고산고 걸어가야 할 길

1) 학생 행위 주체성이 발현되는 배움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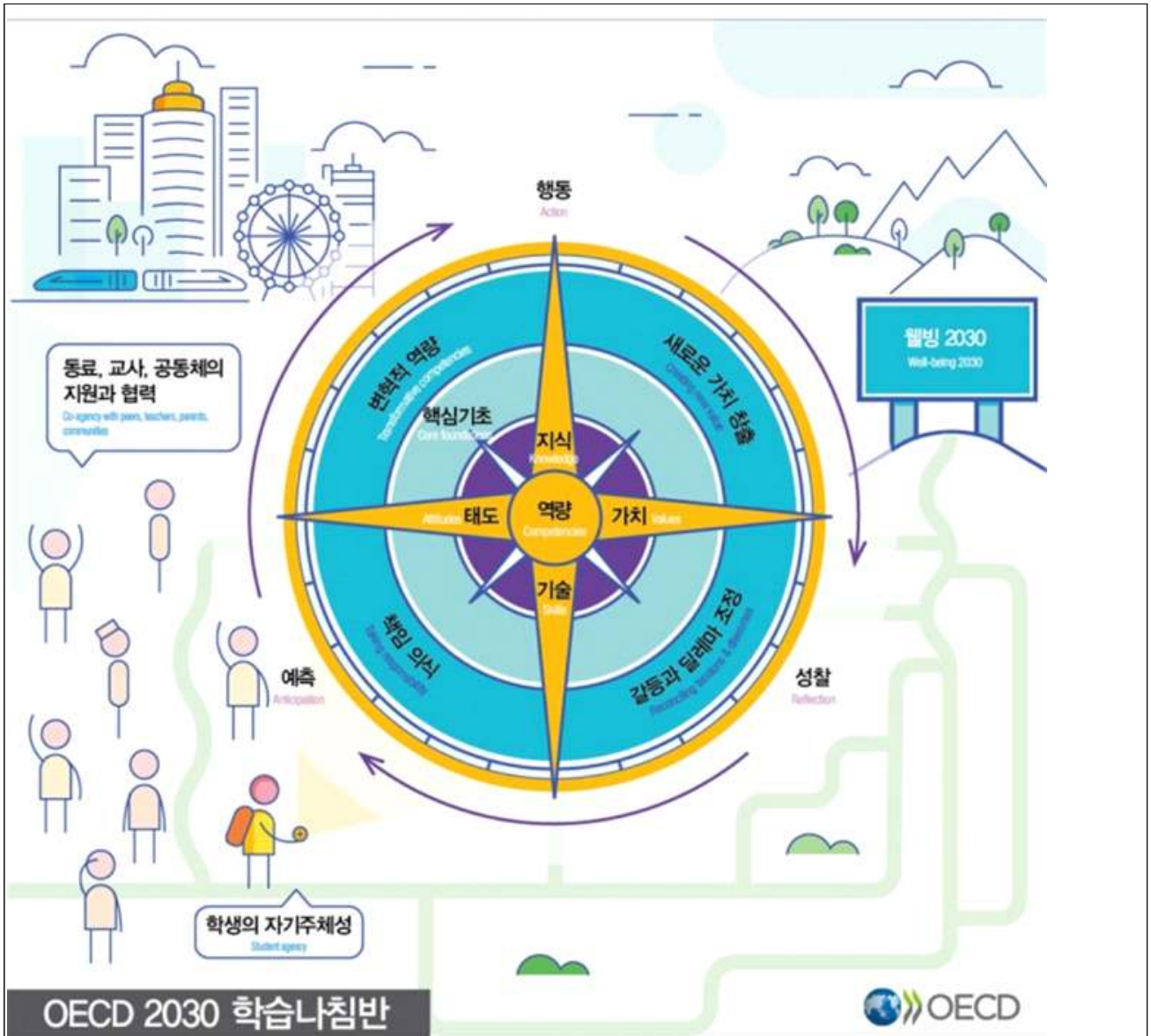
- 참공부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유로 배움으로 시작하고 배움으로 끝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스스로 창출하기 위해서 교사와 양육자는 배고픈지 졸리는지 아픈지 물어봐야 한다. 거기서 교육은 출발해야 한다,
- 많은 실험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인간은 백지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담지하고 태어난다. 학생 스스로 발화될 수 있는 환경으로 교사와 양육자는 곁에 있어야 한다.
- 지금처럼 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무장한 다양한 콘텐츠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시대에 슬하의 가르침은 아주 먼 옛이야기가 돼버렸다. 지식과 기술보다 ‘태도와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태도와 가치는 삶 속에서 배울 수 있으며, 배움이 삶을 만나서 각자의 꽃이 핀다.

* 학생 행위 주체성(student agency)

학생 행위 주체성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반성하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학습자가 자기 학습의 행위 주체가 되어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결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 더 나은 동기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학생 행위 주체성을 학습자 개인의 능력(ability), 의지(will)와 행동(acting)으로 정의한다. 즉, 개인이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며 더 나은 삶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능력으로 본다.

(OECD, 2019 부산대 이영선 교수 글 중)

2) 삶 속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



미래세대 문제 해결 역량 “학습 나침반” (2020, OECD 교육 역량국)

- OECD에 제시한 ‘학습 나침반 2030’ (Learning compass 2030)에서 제시한 ‘변혁적 역량’ 세 가지는 ‘새로운 가치 만들기’,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책임감 가지기’이다. 그리고 “학습자는 사회 문제에 대해 먼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협력해 혁신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역량은 삶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를 겪어나가며 배울 수밖에 없다.
- 고산고 교육 역시 해결해야 하는 최대 과제는 ‘지식교육을 어떻게 삶의 교육으로 접속시킬 수 있을까?’이다. 공자도 학이불사즉망사이불학즉태(學而

不思則罔,思而不學則殆)¹⁾ 라고 했듯이 삶과 배움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산고 삶의 교육이 완성되려면 지식 공부가 왕성하게 살아나야 한다. 책을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를 깊게 읽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3) 양육자회의 물리력화, 교육의 주체로 바로서기

- 그간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양육자는 학교 담장 안에 들어서는 것 자체를 문화적으로 금기시해 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러 가는 곳이었다. 입시라는 날카로운 칼 위에서는 학부모의 자리는 학교 안에는 없다.
- 양육자들과 지역 등 교육의 방향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밑바탕에 깔리지 않으면 대안학교로서의 고산고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 대안학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입시라는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기 쉬우며, ‘입시반’ 운영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고산고의 노력이 교사 개인의 고민을 넘어 공유하고 함께하는 과정의 중요성도 드러나고 있다.
- 그간 양육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양육자들도 자녀들과 일방적인 돌봄의 관계에서 상호 동반적인 관계로 재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산고 교육에 찬성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일 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고산고가 대안교육 과정을 온전하게 후퇴하지 않고 지속 유지 시켜 나가게 하려면 조직화한 양육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 이런 양육자의 삶이 잘 펼쳐지도록 학생과 교사들은 도와야 한다. 헌데 바빠기도 하지만 학교에 가지 않는 일반 학교 문화 때문에 고산고 양육자들도 학교에 잘 나오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선배 양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제법 학교에 나오시기 시작했다. 양육자 물리력화는 최소 8년 장기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이 흐름이 한 3년 이어지면 멋진 양육자회가 생길 것이다.
- 그리되면 교사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을 성장의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양육자 회의 건강한 지지로 인해서 생긴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일일이 교사의 손이 가지 않더라도 함께 기획하는 일이 늘어나고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면서 교사의 일을 분담해간다.
-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교사와 학생과 교사의 상호 안전한 관계가 형성되면

서 고산고의 교육이 더욱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양육자, 교사, 학생, 마을이 함께 책 읽는 다양한 소모임을 운영하며, 일주일에 한번 읽고 싶은 책 한 권 독서세미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일상적인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4) 각자 자신만의 생활을 스스로 일구는 교육과정

-
- 고산고 생활 24시간이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목표는 ‘고산고에서 하루를 어떻게 잘 살 것인가?’고 바뀌서 질문해야 한다. 하루 종일 어떻게 행위를 구성할 것인가. 결국 각자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 특히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각자 시간표의 요구는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 속에서 얼마나 자기 삶을 책임지고 구성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 목표가 되겠다. 결국 각자 시간표를 얼마나 주도적으로 자기가 구성하는가가 최대의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가 잘 기획한 그 어떤 수업도 흥미와 자발성을 보이지 않는다. 배움은 호기심과 흥미를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여정인 것이다.
- 이를 위해서 학년 팀을 더욱 밀접하게 활성화해서 학생들이 각자 시간표를 만들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 스스로 설 때까지 지켜봐 주는 소위 튜터링을 해야 한다.
- 고교 학점제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자발적 배움의 창을 여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는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라 한다. 한국교육의 블랙홀 대학입시 때문이다.
- 정규 교과교육 이외의 다양한 외부에서 학교에 와서 하는 특강들 성교육, 장애 이해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실제 학생들 상황을 잘 고려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교육이 되도록 준비하는 교사들이 사전에 교육안을 보고 협의 조정하여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5) 자기를 돌보고 성찰할 수 있는 일상적인 교육

- OECD 2030 학습나침반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래 교육의 중요역량 중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가 있다. 이는 인류가 오래전에 밝혀놓은 영성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다. 영성 교육이란 생기고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 이면에 신비한 전체로써 나를 발견 하는 여정이다. 유발 하라리도 미래 교육의 일환으로 명상을 제시했다. 유발하라리는 2000년 친구 따라 10일 과정 위빠사

나 수련회를 처음 경험한 그는 '열흘 동안 내 감각을 관찰하면서 나 자신과 인간 일반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그때까지 살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할 정도다. 이 외에도 자신을 성찰하고 돌보는 명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요즘 아이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조절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 서툴다. 과잉된 자의식으로 자신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왜곡된 방향으로 자신을 해하거나 남을 해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교사들과 논어 읽기를 시작했다. 피곤한 일정임에도 의미가 있고 지속하고 있다 이를 교사 문화로 포기하지 않고 정착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흘러넘치는 시기가 올 것이다.
- 나를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또 다른 연습의 일환으로 자애 명상을 제안한다. 과거에는 제사 등 허례허식이 많아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의식의 완전 소멸로 모든 일상이 바쁘고 소비적으로 변해 버렸다 순간 멈춰서 어떤 의미를 관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덴마크 에프터 스쿨레도 거의 모든 모임 전에 의식 차원에서 명상 및 암송을 한다. 공동체 형성과 어떤 가치의 내면화에 좋은 방법으로 일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된다.

<자애 명상 예시>

내가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악의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https://wildwater.tistory.com/13>[산, 물 그리고 흔적:티스토리]

6) 학교 교직원 관리 및 지원

- 고산고 학교조직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교무실, 행정실 그 속에서 더 세분화하면 각 학년 교육과정 팀, 각 부서팀, 급식팀, 기숙사팀,

협동조합팀, 시설팀, 행정팀이 있다. 원칙적으로 각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리더십과 팔워십이 함께 공존하는 자치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

- 관리자가 통할하는 것은 수직적이고 직선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각 주체가 각기 현장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그럴 때 직원 모두 주인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주도성 매우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일 수 있다. 관리자 지원은 제도적 지원은 교감이 철학적 지원은 교장이 나눠서 해야 한다. 이런 구분이 실제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7) 지역사회 연계 활동

1. 지역소멸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고산고등학교

- 1981년도에 이 지역 유지들이 땅을 회사해서 고산고를 세웠다. 지역의 아동들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 기를 소망 하면서 학교를 세웠다. 현재 이런 목적에 더해서 마을을 살리는 것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마을이 사라지는데 학교는 존재 할 수 있을까? 학교의 존재 이유가 마을 소멸이란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학교에게 마을을 살려주라는 요구가 덧붙여졌다. 그간에는 학교가 마을을 잘 활용했다면 이제는 마을의 현실적인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를 교사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 그럼 어떻게? 이 질문에는 속이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고산고는 그동안 일단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친해져 보자 우리가 서로 함께 살면서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런저런 오해도 있고 이런 당위를 실현할 방법을 모르니 일단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만나는 모임을 3년 넘게 해오고 있다. 우리 고산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에 존경을 표한다.

2. 지역과 함께 하는 고산고등학교

1) 지역의 삶을 나누는 교육

- 이번 ○○○에 학생들 참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는 그동안 꾸준히 학교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그것이 이뤄졌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기에 그렇지만 “학교-마을 전담팀”의 3년의 꾸준한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4시 30분 이후 고산까지 외출을 자유롭게 허용 함으로써 고산 면내에 학생들의 출현은 여러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일단 마을 속에서 일상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만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 고산고는 그간 고산에서 섬처럼 이방인으로 존재해 왔다가 이제 고산 주민으로 정체성을 가지는 문에 들어선 것 같다. 본인도 고산에 집을 지어 살면서 더욱 밀착해서 고산 주민으로 살기를 실천할 것이다. 이런 흐름을 이어 가다 보면 고산을 살리고 학생들도 삶 속에서 실제적인 배움을 가지는 다양한 프로젝트 성 사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2) 고산고등학교 공간을 지역의 공간으로

학교 풋살장이 만들어졌다. 도의원 000 의원의 재량 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다. 학교 공간이 마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은 전북 도 교육청의 중심 가치이기도 하거니와 공공재산을 본래 목적의 피해 없이 마을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이 있겠다. 안타깝게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샤워 시설과 화장실을 구비 하지 못했다. 다만 000 완주의회 의원과 함께 세워보자고 약속한 바가 있다 이도 추진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지역의 공간을 학교가 나누듯 학교의 공간을 지역과 함께 하면서 실제 지역의 학교로 거듭 나아가야 한다.

3) 학교들간의 교류를 통한 더 넓은 성장

마을 공동체 사업도 초등 중등 고등 연계 사업을 해야 한다. 지역 초중등학교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고산고는 고산중 전형이 따로 존재 하는데 고산중이 이에 대한 의미를 중하게 여겨서 학생들이 고산고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는지 사전에 충분하게 알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와 만남을 조직해야 한다. 당장 고교 학점제 문제로 만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대안교육 전국 특성화 학교의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고산고 교육이 우리 교육과 지향이 같은 외부 대안학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분투하는 다른 지역 학교와 함께 교류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 해졌다.

- 고산고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큰 것은 대안적인 교육과정을 운용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교사들이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전북교육의 책임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의회에서 아직 고산고 교육의 정당성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들의 활동을 통해 증명해 내고 설명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1)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사색하지 않으면 학문이 체계가 없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오류나 독단에 빠질 위험이 있다."